



무엇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이끌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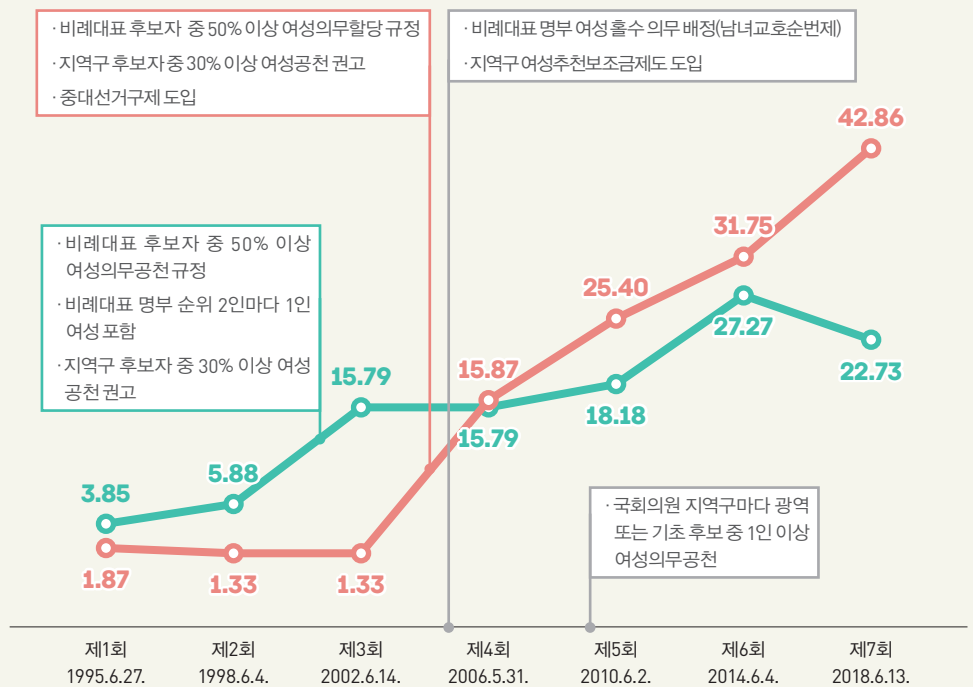
선거제도와 여성인구, 여성가구주,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과 함께 살펴보는 여성의 정치참여 변화

이번호는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전시 여성의원 비율을 선거제도 및 여성의 삶의 요인 변화와 함께 살펴본다. 배정아 외 (2014)의 '선거제도와 여성참여' 논문에 나타난 주요 영향 요인들을 활용했다.

1995년에 치러진 1회 지방선거부터 최근 치러진 7회 지방선거까지 대전시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을 살펴보면,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1회 3.85%에서 6회 (27.27%)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치러진 7회 지방선거에서 22.73%로 감소했다. 기초의회 여성 의원은 1회 1.87%에서 2회, 3회(1.33%) 다소 줄었으나, 4회(15.87%)부터 이번 지방선거(42.86%)까지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1회 대비 18.9%p,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41.0%p가 상승했다. 특히, 4회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이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14.6%p 상승해 가장 큰 폭으로 변화했다. 이 시점에는 '여성추천보조금제도', '기초의회 "비례대표 50% 여성무공천', '중대선거구제' 등 새롭게 도입된 선거제도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지역구+비례) 비율 추이

● : 대전 광역의회 여성의원 ○ : 대전 기초의회 여성의원 단위 : %



*광역의회의와 기초의회의의 전체의원 및 여성의원 수는 지역구 당선인수에 비례대표 당선인수를 포함해서 산출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지방선거정보(info.nec.go.kr/main/main_load.xhtml)

황아란, 서복경(201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선거제도 효과: 지방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제1권 제1호, pp.102.

김원홍, 김복태(2013), 지방선거 공천제도 변화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전담 및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3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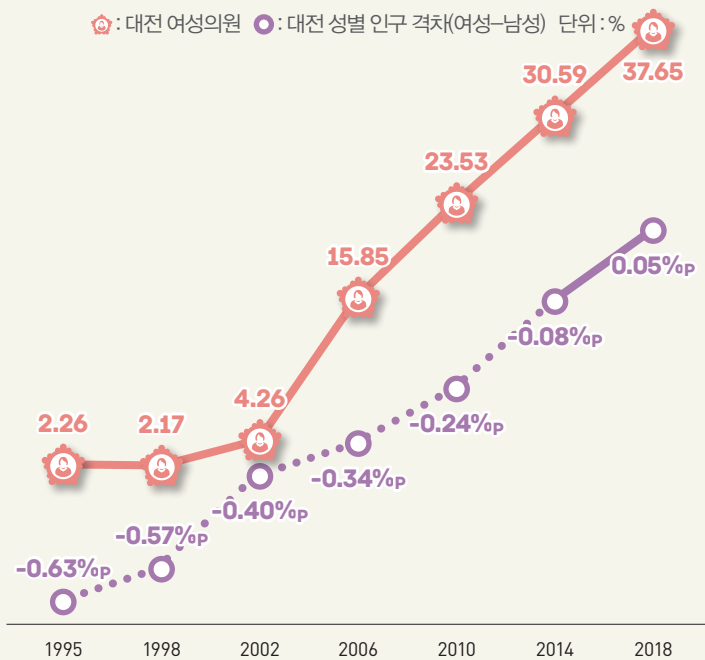
배정아, 윤태섭(2014), 선거제도와 여성참여,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1호, pp.37.

여성인구 많아지면 여성의원 늘어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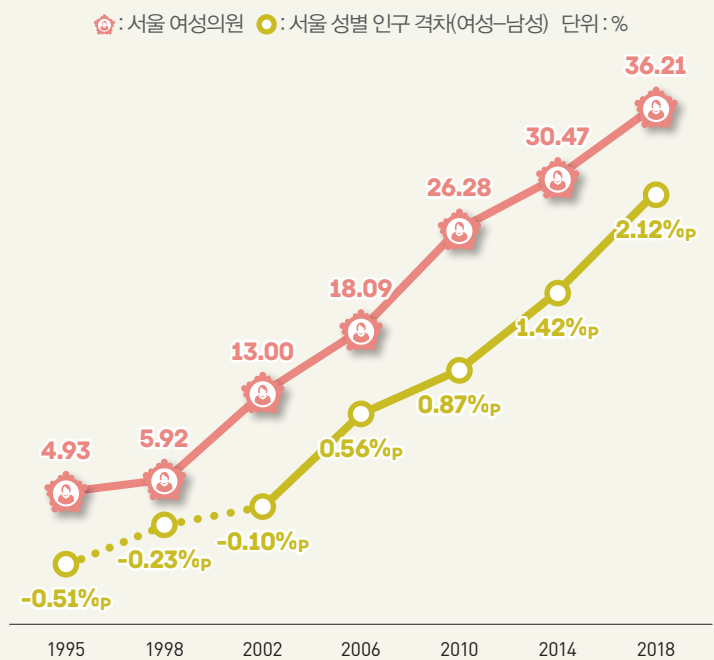
6월 말 기준 특·광역시 중 여성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여성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인천, 울산의 성별 인구 격차 및 여성의원 변화를 함께 살펴봤다. 대전의 성별 인구 격차는 점점 좁혀져 2018년 6월 여성이 남성을 추월했고, 여성의원 비율은 37.65%로 1회 지방선거(2.26%) 대비 35.4%p 상승했다. 서울은 2006년 기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지고 있으며, 여성의원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전체 의원 중 36.21%를 차지했다. 인천의 여성인구는 2018년 현재까지 소폭 늘었으나 여전히 남성인구가 절반 이상이며, 여성 의원은 꾸준히 증가해 32.25%로 나타났다. 울산은 오히려 1995년보다 2018년 6월 여성인구가 줄었으며, 여성 의원은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원 비율(27.78%)은 대전, 서울 인천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여성인구 비율은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에서 해당 시·도의 총인구수 대비 여성인구수로 산출함
 *활용된 주민등록인구 데이터는 지방선거가 실시된 해당 년도의 연말 기준임. 단, 2018년도는 6월 기준 인구수를 활용함
 *성별 인구 격차(%p)는 여성인구(%)에서 남성인구(%)를 뺀 수치임
 *울산시는 1997년에 광역시로 승격해 97년 이전 여성인구 비율 산출이 불가능하며, 제2회 지방선거부터 실시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지방선거정보 (info.nec.go.kr/main/main_load.xhtml)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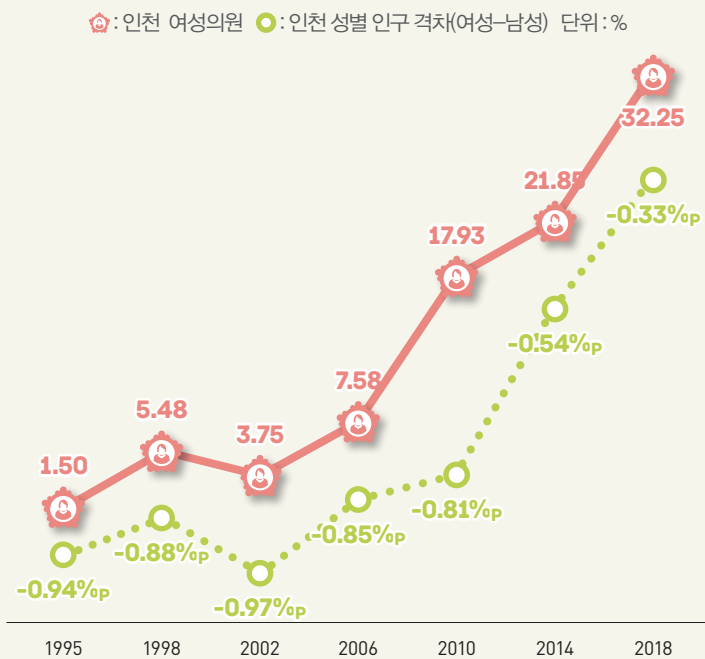
대전 여성인구와 여성의원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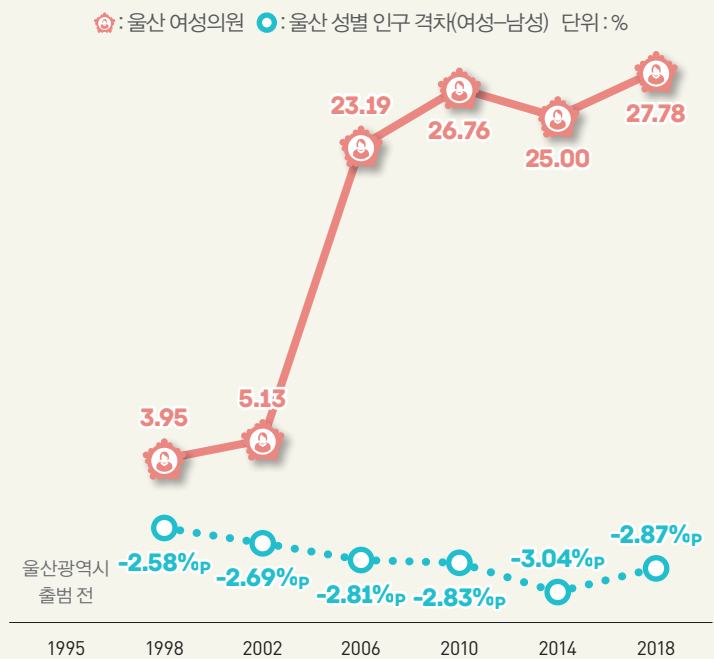
서울 여성인구와 여성의원 비율 추이



인천 여성인구와 여성의원 비율 추이



울산 여성인구와 여성의원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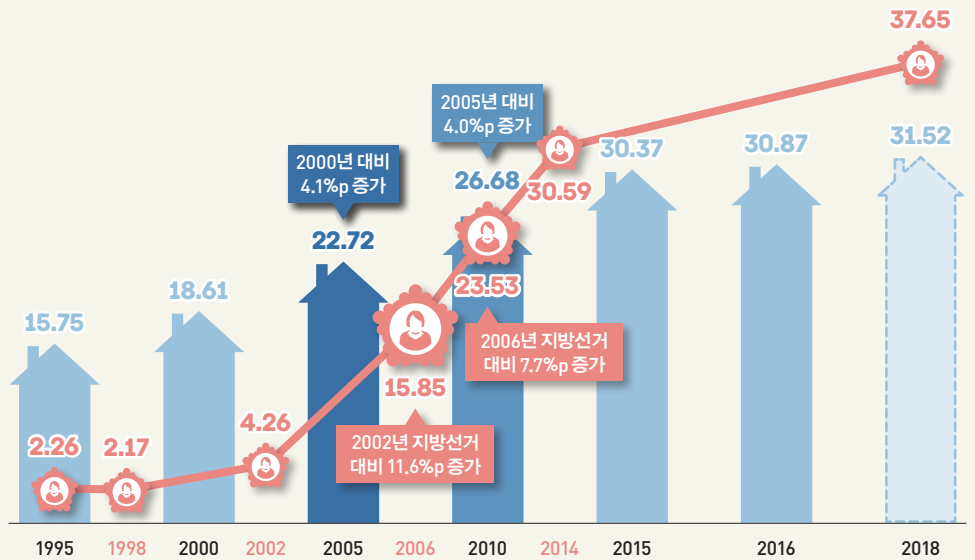


여성가구주 증가하면 여성의원이 더 많이 필요할까?

대전의 전체 가구 수 대비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시점은 2005년 (22.72%, 2000년 대비 +4.1%p)이며, 여성의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방선거는 2006년 치러진 4회 지방선거로 2002년 대비 11.6%p 상승했다. 그 다음 여성가구주가 많아진 시점은 2010년(26.68%, 2005년 대비 +4.0%p)이며, 여성의원 비율도 2010년 지방선거(2006년 대비 +7.7%p)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대전 여성가구주와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추이

👤: 대전 여성의원 ▲: 여성가구주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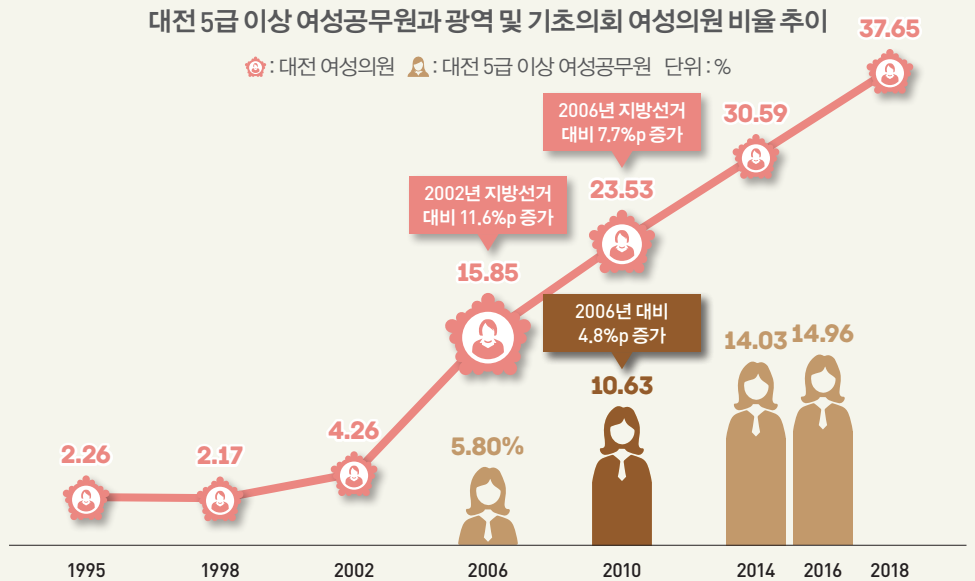
*대전시여성가구주비율은 통계청 인구조사에서 대전시 총 가구수 대비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수로 산출함. 단 2018년 여성가구주 비율은 장래가구추계의 대전시 총 가구와 여성가구주를 활용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지방선거정보 (info.nec.go.kr/main/main_load.xhtml)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증가와 여성의원 비율 상관관계?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06년부터 파악이 가능했다. 대전의 2006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5.80%에 그쳤으나 2016년 14.96%로 9.2%p 상승했다. 특히 여성의원 비율이 두 번째로 급격히 증가했던 2010년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10.63%)은 2006년 대비 4.8%p 늘어나 가장 큰 상승 추이를 보였다.

대전 5급 이상 여성공무원과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추이

👤: 대전 여성의원 👩: 대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단위: %



*대전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데이터는 지방선거가 실시된 해당연도의 연말 기준임. 단, 2018년 자료가 나오지 않아 가장 최신인 2016년 데이터를 활용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지방선거정보 (info.nec.go.kr/main/main_load.xhtml)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대전 여성가족정책센터 # 양성평등주간 # 특별기획포럼 # 젠더콜로키움

2018년 양성평등주간기념 특별기획포럼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지난 7월 5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특별기획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성희롱 개념 및 대응방식 등에 대해, 주혜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이 올해 대전시와 함께 수행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철환 법률사무소 지원 변호사, 이주현 카이스트 인권윤리센터 부센터장, 이영세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이은주 대전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장이 토론자로 참가했으며, 최혜경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과 여성 중점관리자급을 피해 신고처이자 1차 상담자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3회 젠더 콜로키움

밋밋한 사고에 주름을 잡다

여성 및 가족 이슈와 담론을 파악하고, 전문가 역량 강화 및 신진 연구자 발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제3회 젠더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제발제 | **전후 1950년대 한국사회: 신상옥의 <지옥화>에 나타난 신식민주의 근대성과 젠더 민족주의**

- 황정현(한성대학교 교수)

일시 | 2018년 8월 16일(목) 10:00

장소 | 대전세종연구원 3층 소회의실